

##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8)

이 정엽 목사

(달라스 뉴비전교회 / 214-534-7141)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사야 43:1-7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첫째로,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자이다. 둘째로, 나는 예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산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이다. 셋째로, 나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자이다. 넷째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I belong to God). 1절 말씀에 “너는 내 것이라(You are Mine.)”고 하나님께서 간결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선언하셨다. 앞으로 네가 하는 것 봐서 내 것으로 삼겠다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내 것이지만 나중에 잘못 하면 내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다. 너는 내 것이다! 지금 내 것이고, 앞으로 영원히 내 것이라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유행가 가사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나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값 주고 산 하나님의 것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이런 존재인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사신다! 또한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증하시고, 확증을 주시며 인도하신다.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고 행복이고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누리며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안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나에게 주어진 진리와 사실을 거부하고 살기 때문인 것이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자. “네가 누군데? 너는 죽었다 깨도 그렇게 살 수 없어!” 이런 사단의 소리에 꾀임받아 넘어가지 말라. 그의 별명이 거짓말쟁이가 아닌가? 무엇이 진리요 사실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네 안에 내가 산다! 너도 네 안에 내가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그러면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확신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다섯째로,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이다. 2절 말씀을 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누구인가? 물과 불의 위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자이다는 진리와 사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만나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들이 추적해 올 때 어떻게 그들이 홍해를 건넜는가?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가르시는 이적을 베푸사 마른 땅을 건너지 않았는가? 가나안에 입성할 때에도 범람한 요단강을 언약궤를 앞세우며 건너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그들이 물 가운데도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 죄로 극렬히 타는 풀무 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몸 하나 상하지 않았다. 그들이 던져진 풀무 가마 안에 누가 계셨는가? 신의 아들, 예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에서도 그가 사랑하는 자녀들, 그가 피로 사신 성도들과 교회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우리가 고통당하는 물과 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자.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된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내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 흩어진 자들을 다 모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자,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임을 온전히 믿고 경험하는 자가 되자!